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4

# Photo Gallery

2013/04/13 (토) 16:00 상주전



#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고양



4월 20일 (토) 14:00

Next Home Match

광주 vs 경찰청 4월 28일 (일) 14:00



[www.gwangjufc.com](http://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fc



/gfc0

# Data

## 2013 K리그 챌린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구단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1	경찰청	3	9	3	0	0
2	상주상무피닉스	5	9	2	3	0
3	부천FC	4	7	2	1	1
4	수원FC	4	5	1	2	1
5	FC안양	3	4	1	1	1
6	충주함멜	4	4	1	1	2
7	광주FC	5	3	1	0	4
8	고양FC	4	2	0	2	2

## 광주 FC 최근 5경기 전적

K LEAGUE  
CHALLENGE

대회명	날짜	홈	스코어	원정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3/16	광주	0 - 3	상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3/24	광주	0 - 1	충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3/31	안양	1 - 2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4/07	광주	3 - 4	수원F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4/13	상주	2 - 1	광주

## 광주 FC 2013시즌 득점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득점	경기수	득점률
1	김준엽	2	3	0.67
2	박정민	1	4	0.25
3	안동혁	1	5	0.20

## 광주 FC 2013시즌 도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도움	경기수	도움률
1	마철준	1	1	1.00
2	권용남	1	3	0.33
3	김호남	1	3	0.33

##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4.07(일)	14:00	광주	수원FC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청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청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청

## Sponsor

		
		
		
		
		
		
		
		



# Review

## 극적인 역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동점의 기쁨



역사적인 K리그 챌린지 개막전에서 쓰라린 0-3 완패를 안겼던 상주를 다시 만났기에 광주 선수들은 강한 정신 무장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했다. 그 효과는 전반 초반부터 나타났다. 3월 첫 만남에서 광주를 크게 흔들었던 이근호를 필두로 하태균, 이상호 등이 공공 묶이며 상주 본연의 페이스를 좀처럼 찾아가지 못한 것.

반면, 광주는 수비를 우선 두텁게 하면서도 패조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공격의 꼭짓점 루시오, 수원전에서 2골을 작렬시킨 김준엽, 재간이 있고 한 방을 갖춘 안동혁을 축으로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을 펼치며 몇 차례 상주 수비수들의 간담을 서늘게 했다. 다만 마무리의 세밀함이 다소 부족해 이 날 경기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던 전반전 선취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이 후반 초반 상주에게 PK를 내주며 단숨에 뒤집어진 것이 문제였다. 후반 10분이 갓 지났을 무렵 미드필더 정경호가 다급한 상황에서 상주 하태균에게 파울을 범한 것. 이때부터 광주 여범규 감독은 기막힌 교체카드 활용으로 급격한 반전을 이끌어냈다. 실점 직후 투입된 임선영과 박현은 측면과 중앙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기어이 후반 25분, 루시오의 절묘한 침투패스를 받은 임선영이 상주 GK와 일대 일로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동점골을 성공시킨 것.

그러나 이후 거세진 상주의 막판 총공세에 팀이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상대 공격수들의 결정적인 유효 슈팅 서너 개를 GK 김지성이 몸을 던지며 막아냈으나 결국 후반 37분 이승현의 헤딩골을 막지 못하고 아쉽게 1-2로 무릎을 꿇었다.

# Preview

## 광주, 안방에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광주가 올 시즌 네 번째 홈경기에서 만큼은 과연 홈 첫 승의 쾌거를 올릴 수 있을까? 비록 어웨이에서 안양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은 올렸으나 아직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여범규호가 '3전4기'의 정신으로 빛고를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한다.

광주FC가 오는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고양HIFC를 상대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013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제10라운드를 미리 당겨서 치른 지난 주말의 상주전마저 패하면서 1승 4패로 중간 순위 7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광주로선 '배수의 진'을 친다는 심정으로 이번 안방에서의 고양전에 임해야 한다.

비록 지난 라운드 상주와의 리턴매치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3월의 첫 경기 패배단 공격-수비 등 모든 면에서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 희망적이었다. 일단 강력한 압박이 살아나고 있고 역습은 지난 안양전을 기점으로 경기를 거듭할수록 날카로움이 배가되고 있어 수비가 다소 취약한 고양의 허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활발해진 공격진과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에 비해 수비라인은 다소 불완전한 조직력에 막판 고비를 넘기는 힘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 비록 하위권에 처져있기는 하나 짜임새 있는 패스워크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돋보이는 고양이기에 수비 시 광주의 모든 선수들은 자기 진영에서 단 한 순간도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된다.



## 고양 Hi FC - 짜임새 있는 패스워크를 갖춘 다크호스



현재까지 K리그 챌린지에서 단 1승도 없이 2부 2패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고양이지만 그간 보여준 순수 경기력만을 놓고 보면 결코 8위에 처져 있을 수준은 아니다. 일단 이영무 감독이 내셔널리그 시절부터 주장해온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한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이 그 확고한 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창수와 윤동현을 축으로 한 찬스 메이킹과 이도성-주민규-이현창의 부지런한 움직임은 어떤 상대들과의 대결에서도 최소 자기들만의 경기력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 달 간은 주요 공격진들의 줄부상 등으로 득점력이 저조했으나 용병 알렉스가 돌아왔고, K리그 경험이 풍부한 '해결사' 이광재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기에 최전방 창끝은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반면, 수비라인은 안정적인 패스 전개로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정작 본업인 수비 그 자체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피지컬적인 부분이 떨어져 상대 공격수들과의 일대 일 상황이나 세트피스 시 경합에서 밀려 잦은 위기 상황을 맞는 점을 광주로선 심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눈에 띄는 드리블과 슈팅

고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테크니션으로 그의 발끝에서 팀의 날카로운 슈팅과 패스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상대 수비 한 명은 가볍게 제치는 드리블에 다소 왜소한 체형임에도 톱니 나면 위치를 가리지 않고 대포알 슈팅이 단연 일품이다.

## Focus

### 임선영 "광주의 파괴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남자"



지난 상주 원정에서 광주는 조직적인 플레이로 동점골을 엮어내며 홈팀에게 또 한 번 '안방 징크스'를 안길 뻔 했다. 비록 극적인 역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진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경기 흐름을 단번에 뒤바꾼 여범규 감독의 용병술은 높이 평가받을 만 했다. 여 감독이 선택했던 '바로 그 남자들' 중 하나가 결국 일을 냈고, 그가 임선영이었다.

비록 상주전에서 30분 남짓한 시간을 뛰었지만 재치 있는 드리블과 날카로운 공간 침투, 강력한 슈팅은 임선영의 가치를 드러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후반 25분의 동점골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압축해 보여준 장면.

상주 진영 한복판에서 볼을 잡은 루시오가 전방을 살피고 즉시 볼을 찢어주는 타이밍에 맞춰 상주 4백라인의 뒤 공간을 절묘하게 빠져 들어가 단독 찬스를 잡았다. 상대 GK 김호준이 즉시 각도를 좁히기 위해 뛰어나오고 뒤에선 당황한 상주 수비수들이 자신을 덮치려는 순간, 임선영은 극도의 냉정함으로 상대 골문의 상단으로 강력한 슈팅을 꽂아 넣었다.

최근 광주는 분명 공격진의 화력이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을 푸는 과정에서 루시오의 볼 키퍼링과 드리블에 의존하는 경향이 약점으로 지적됐는데, 최근 골맛을 본 안동혁과 김준엽에 이어 임선영마저 살아나준다면 이번 고양전은 홈팬들에게 안방에서의 시즌 첫 승을 선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